

책으로 풀어보는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 지역별 민족·종교 갈등의 실제 해부

세계화를 운위하는 20세기말 지구에서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적'이다. 그러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20세기말 지구에서 '평화'와 '화합'을 운변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중동·아프리카·아시아·유럽에서 오늘도 민족간·종교간·국가간의 분쟁이 진행중이다. 도대체 이들은 왜, 언제부터,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최근 서점가에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의 역사와 양상을 다룬 몇 권의 책들이 선보여, 무관심과 무지로 외면해온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다.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민족분쟁지도) 《종교분쟁지도》 《발칸분쟁사》 《중동분쟁사》 《20세기 결전 30장면》 《전쟁사 101장면》 등이 그것. 이들 책들은 접근하는 방법이나 관심, 관점이 제각각이지만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현재 상황과 정치·사회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분쟁의 역사적 배경과 진행상황 살펴

《20세기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푸른길)은 현재 진행중인 지구촌의 분쟁과 갈등의 지리부도라 할 만한 책이다. 중동지역, 아프리카, 동부 유럽 및 구소련 지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현재까지 국지적인 내분이나 분쟁이 이어져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분쟁의 발생 원인과 특징, 역사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배경과 지리적 특성을 살피는 한편, 그 지역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사와 지도, 사진을 첨부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팔레스티나·쿠르드·보스니아·소말리아·에티오피아·북아일랜드·카탈루냐·스리랑카·동키모르·감보디아·아프카니스탄 같은 해묵은 분쟁 지역 외에도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는 '조어도' 분쟁, 중국의 소수민족문제 등 가장 최근의 사례까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책이 지닌 특징이다.

분쟁 지역연구는 '현장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작업인 관계로 언론인들의 활약이 어느 분야보다 두드러진다. 자작나무에서 펴낸 《민족분쟁지도》(아시아 노부오 지음), 《종교분쟁지도》(이사카와 준이치 지음)는 저자가 현지 언론인이거나 언론인 출신으로 여러 지역의 특파원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윤길순 옮김). 냉전 후 국제정치 질서를 움직이는 주요한 두 축으로 '민족'과 '종교'를 제시하고, 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진행되는 각 지역의 분쟁의 원인과 진행상황을 간



보스니아 총선을 앞두고 열린 집회.

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들 책에는 현재 분쟁지역 뿐 아니라 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지역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남북한 통합시 문제로 불거질 '한국의 기독교' 문제나 남한과 북한, 중국 사이에서 심리적 갈등을 겪는 중국의 조선족 문제 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 두 책은 '민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념, 사회화된 가치에 의해 빚어지는 비극과 '종교와 국경선의 불일치'가 빚어내는 종교 분쟁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이데올로기라

는 '편리한' 경계선이 사라진 이후 새롭게 대두된 허구의 구획선인 '민족'과 '종교'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의 책들이 광범위한 분쟁지역을 지리학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면 《중동분쟁사》(서원)와 《발칸분쟁사》(우리문화사)는 세계 최대·최고의 분쟁지라 할 두 곳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중동분쟁사》는 중동을 둘러싼 아랍-이스라엘의 분쟁을 역사적으로 탐구한 연구서다. 저자는 유공조(경희대 사학과)교수. 1947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결정으로 이스라엘이 탄생한 시기를 전후로 발생한 아랍과 이스라엘의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살아온 원주민 아랍인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결정이 화약더미에 던진 불씨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 지역의 분쟁문제는 근대사 전체와 관계되는 문제라는 게 유교수의 설명.

유럽열강에 의한 근대 식민지체제와 중동의 제국주의적 지배, 아랍민족주의의 형성, 유럽의 유대인 문제, 시오니즘 운동, 제2차 대전 후의 냉전구조와 현재의 공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분쟁문제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명

"헝가리 유학 중에 유고내전을 목격했고 그때 느낀 분노가 발칸분쟁에 대한 궁극적

소식

교보사이버 북센터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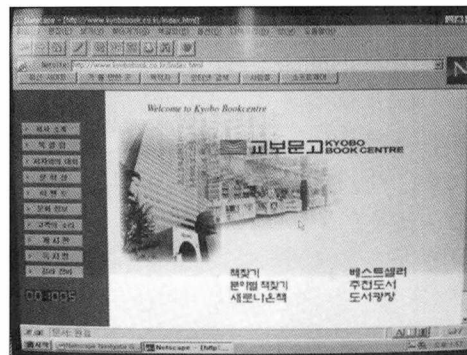
국내외 50만종 도서정보 제공... 다양한 검색기능도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가 지난 9일 인터넷 사이버 서점인 '교보사이버 북센터'를 열었다. 이미 문을 연 종로서적, 영풍문고의 사이버 서점과 함께 국내 대형서점으로는 세번째로 개설된 교보사이버 북센터는 특히 외부 전문업체의 도움없이 자체 기술력만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국내 도서유통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총 작업기간 6개월에 프로그램 개발비만 1억 5천만원.

교보사이버 북센터가 지니는 강점은 빠르고 다양한 정보 서비스. 국내도서 35만종과 외국도서가 15만종, 도합 50만종의 도서

를 보유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화면 디자인을 심플하게 하고 화상정보를 줄여 '문자정보'가 주가 되는 도서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국내외 도서 모두 도서명, 저자명, ISBN번호 가운데 하나만 알아도 원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제어와 출판연도에 의한 검색도 물론 가능하다.

이밖에도 분야별 책 찾기, 분야별 베스트셀러 정보도 제공한다. 최근 1개월 내에 입고된 신간은 따로 관리하여 분야별로 정보



를 제공하고 주요 도서에 대해서는 초록과 목차 나이가 해당 책에 대한 서평 및 북리뷰도 함께 볼 수 있다. 원하는 책은 '쇼핑백'에 담았다가 구입하면 되고 책은 우편으로 배달된다.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북클럽 회원에게는 통신판매 우송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감동적 삽화 속에 감춰진 현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읽고

이나미 · 이나미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을 더했다"고 고백하는 김성진씨(중앙일보 전문기자)의 《발칸분쟁사》는 세르비아인의 배타적 민족주의인 '대세르비아주의'와 '유고슬라비즘'의 충돌이 빚은 비극인 '유고슬라비아내전'을 중심으로 발칸반도에서 야기된 갈등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출판저널》 212호 관련기사 참조)

《전쟁사 101장면》과 《20세기 결전 30장면》(이상 정도웅 지음, 가람기획)은 전쟁의 의미를 살피기보다는 전쟁 자체를 살피는데 중점을 둔 책으로 앞의 책들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지닌 책이다. 현재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의 이력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규모 전쟁의 진행과정, 사용된 무기나 전술, 전쟁에 참여했던 인물들에 대한 정보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대규모로 치러지기보다는 국지전으로, 그러면서도 쉽게 결판이 나가거나 해결될 성질은 아닌 분쟁의 원인과 정치·사회적 의미, 역사적 배경 등을 살핀 앞의 책들에 비하면 보다 섬세하고 비판적인 독서를 요구하는 책이기는 하지만, 역시 20세기에 일어난 주요한 분쟁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는 마찬가지다.

세계 도처에서 진행중인 분쟁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최근들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그래서 새삼스럽기조차 하다. 이에 대해 전남대 지리학과 이정록 교수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전에 없이 크게 대두되었고 분쟁지역 연구도 그 일환"이라고 배경을 설명한다. 지리학·인류학·역사학·사회학 등 관련 학계의 학제간 연구를 통한 지역연구는 앞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냉전구도의 해체 이후 '민족'과 '문화' 공동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분쟁지역 당사자들에 대한 인도적인 관심때문이라도 분쟁지역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은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그뿐인가. 이념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세계 유일의 지역이라는 우리의 현실은 세계의 분쟁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각인시킨다.

— 박남정 기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미국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칠면조나 블루베리 요리같이 푸근한 고향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만한 책이다. 청소년 취향의 제목과 표지 때문에 책을 산다는 게 왠지 쑥스러워 골라 보지 못하고 있다가 모처럼 단단히 마음먹고 속독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했다. 정신탁약자, 학습부진아, 따돌림받는 아이, 힘없고 외로운 노인같이 사회의 음지에 있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책의 내용 중에는 정말로 감동적인 삽화들도 사실 많다.

소녀취향의 감상까지

그러나 그중에는 꽤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도 적지 않았다. 베스트셀러들이 갖고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러지 않아도 감성적인 독자들을 더욱 감상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쪽으로 몰고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대목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펜팔을 하던 얼굴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의 진실을 알고 싶어 나이 많고 조금 뚱뚱한 여자에게 대역을 시켜서 남자를 테스트 해보는 《사랑의 약속》 같은 글도 그렇다. 이미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마치 아주 새로운 드라마인 양 잘 포장해 놓은 솜씨는 칭찬할 만했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행복하다는 해피엔딩의 할리우드식 발상'으로부터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읽은 뒤끝이 좋지 않았다.

또 《중이에 적은 희망사항》에서는 이혼한 여자가 "소형 비행기를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란 쪽지를 적은 후 "곧바로 다음날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며칠만에 그 남자가 부자라서 소형비행기를 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는, 현대판 신데렐라 설화의 아류이자 소녀취향의 전형적인 순정만화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다.

물론 인간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책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학교와 관련

사소한 일상의 평범한 내용에서 독자들은 쉽게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몇 발짝만 앞서 문제의 본질을 바로보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대로 남는다.



된 이야기들이 많아 누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길 수 있을 것 같다.

〈신발〉이란 글에서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나의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서 놀림감이 될 뻔한 순간, 선생님의 "진짜 카우보이 신발이구나"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영웅이 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책을 읽다보니 힘들었던 초등학교 시절의 아팠던 기억들이 의식의 밑바닥에 숨어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같았다.

문제의 본질은 외면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며 불행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위로를 받는 것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할 터이다. 자칫 잘못하면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모든 책임을 사랑이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교사에게만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친절한 수퍼 아줌마가 나오는 〈세븐 일레븐에서 생긴 일〉이나 〈할머니의 선물〉도 비슷한 맥락에서 걱정이 되는 대목이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노인들, 운명과 무능 때문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따뜻한 손길과 미소로 도와주는 것도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보다는 치매 등 노인환자들에 대한 의료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과 노후의 사회보험보장들을 철저하게 마련

하는 것이 더 다급하지 않을까. 따뜻한 시선으로 노인들을 그저 바라보는 일과,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서 그 해결법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물론 책의 내용이 반드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거나 모든 문제들의 근본과 본질을 건드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또 모든 저자들이 역사와 사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시각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고 믿지도 않는다.

음식에도 달콤한 맛, 짠 맛, 씹쓸한 맛, 새콤한 맛 등등 여러가지 맛이 어우러져야 식탁이 풍요로운 것처럼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책들을 두루두루 읽을 수 있을 때 우리 정신은 보다 풍요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의 대부분이 마치 아이스크림처럼 입속에서 살살 녹지만 햇빛에 조금만 놔두면 금방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데다가 몸 속에 흡수가 된 후엔 높은 당도 때문에 외려 해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찌보면 매우 사소한 일상들 속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쉽게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고 바로 그 상투성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몇 발짝만 조금 앞서 나가 참신한 그 무엇을 제시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그대로 남는다. ❖